

# “U대회·혁신도시 공사 지역제품 납품 늘려달라”

### 강운태 광주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경영애로 타개 지원 대책 요구 봇물

“자동차부품유통단지가 교통유발 부담금 환인대상에서 제외돼 매년 2000만 원 이상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갂면 방안이 절실합니다.”(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빛가람 혁신도시 공사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아파트 및 경기장 건립 등 대규모사업에 광주전남에 소재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를 제한해 주십시오.”(한태현 광주전남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광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경영애로를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

로 타개하기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광주지역소세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내수부진으로 말미암은 중소기업계의 판매난을 반영하듯 광주시와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률 제고와 지역소세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수만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 시 조합 추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이 인쇄물 제작시 조합추천 소세 수의 계약을 통한 구매를, 하승기 충청·호남알루미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루미늄창호’의 직접구매 이행률을 높이도록 공사용 자재의 설계변경 및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1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40여 명을 초청해 ‘강운태 광주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직접 구매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이외에도 김중성 광주서점조합 조합장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을 수집, 보존·전시할 수 있는 책 박물관 건립을 요청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와 지원을 위한 요청이 이어졌다.

강운태 시장은 “중소기업이 덕분에 광주경제의 오늘과 내일이 존재한

다. 시장의 모든 가치를 중소기업에 두고, 신바람나는 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관행이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올 7월 국회에서 그동안 갑과 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을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시대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5월 광주지역 아파트경매 낙찰가율 2011년 이후 17개월만에 100% 넘어

광주지역 지난달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이 17개월 만에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경제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지역 5월 아파트 경매 건수는 4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없어 낙찰가율(100.6%)과 평균응찰자수(11.3명)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감정가격 대비 낙찰 가격의 비율인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12월(102.5%) 이후로 17개월 만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산구 산월동 부영사랑으로아파트 85㎡형으로 23명이 몰려 감정이 대비 99%에 낙찰됐다. 낙찰가를 부른 서구 화정동 꽃담마을 e-편한세상 185.8㎡형으로 감정 대비 145%에 낙찰됐다.

5월 전남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89.3%)과 평균응찰자수(7.3명)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 전남 토지 경매시장 건수는 7587건으로 전국 대비 물건수가 가장 많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생애최초 주택대출 금리 인하 2.6~3.4%로 낮춰...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자격요건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단독가구 주가운데 만 30세 초반의 ‘컨세대’도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여서 연말까지 1000만 원 높아지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4·1대책에 이어 또다시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월까지 생애

■2013 예산 5조원 범위내에서 운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존)→7천만원 이하(연말까지 한시 변경)

기준	변경		비고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3.5%(20년)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3.0
3.7%(30년)	2천~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3.2

최초 대출실적은 총 5635억 원으로 올해 생애최초 대출 예산(5조 원)의 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1대책 이후 20년 만기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3.5%였으나 12일부터는 소득에 따라 2.8~3.3%로, 30년 만기는 종전 3.7%에서 2.9~3.4%로 각각 인하된다.

만약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6%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제주관광공사 업무협약

아시아나항공이 1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는 제주관광객 유치 확대 및 제주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이벤트를 제

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아시아나 탑승객에게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관광공사사면세점 이용시 7% 할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20.68 (-12.02)	코스닥지수 547.87 (+0.87)	금리(국고채 3년) 2.80% (+0.01)	원·달러 환율 1134.00원 (+6.70)
---------------------------	-------------------------	-----------------------------	-----------------------------

### 기아차 광주産 스포티지R 美소비자만족도 평가 1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R이 미국 자동차 컨설팅 업체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스포티지는 지난 2009년 구형 스포티지R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1년과 올해 세 번째로 수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자동차는 11일 미국 오토퍼시픽(AutoPacific)사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고객 만족도 조사(VSA)에서 기아차 스포티지R과 K5, 현대차 제네시스,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이 ‘고객 만족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신차 보유 고객 5만2000여 명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과 품질, 안전성, 상품성 및 편의성 등 총 5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 만족도를 평가했다. 33개 브랜드 총 294개 모델이 대상이었으며 승용차 11개 부문, RV 및 픽업 11개 부문 등 총 22개 부문의 승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기아차 스포티지R(현지명 스포티지)은 소형 CUV(Compact Crossover SUV)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벨로스터는 중형차(Mid-Size Car)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제네시스는 준고급차(Aspirational Luxury Car)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벨로스터는 스포티카(Sporty Car)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는 총 4개 모델을 1위에 올려 렉스스를 포함, 총 6개 모델을 1위에 올린 토요타에 이어 GM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1위 모델을 배출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백화점·마트 등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2배 오른다

### 국토부 내년부터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백화점, 마트 등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배 가까이로 인상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24년만에 처음이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여년 전부터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시설물 바닥 면적 1㎡당 연간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에는 600원, 2018년까지는 최대 1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각종 면적 합이 3만㎡를 초과하는 건물은 현재 350원에서 내년에는 600원으로 오르며 2018년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다. 3000㎡ 이하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000㎡ 초과 3만㎡ 이하’는 2018년까지 700원으로 인상한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규모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 소유 시설물의 부과 제의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연합뉴스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 겨울철 실내온도 3~5℃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 후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hello tv 가입하시면 반값!

42형 LG전자 LG LED TV: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990,000원, HelloTV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전자 LG LED TV 모니터: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277,000원, HelloTV 가입시 0원 (VAT 포함)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